

올해 '세수 결손' 30조... 지자체 교부세 4조 감소 우려

세입예산 대비 29조6천억 결손 전망 2년 연속 '역대급 핑크' 기금·불용 총동원령 속 "세입추경無"...재원대책 '물음표'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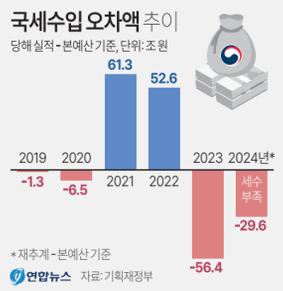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제수입은 337조7천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제수입(344조1천억)보다도 6조4천억 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제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기획재정부 정경훈 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

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제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 여윌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약 4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의 국제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2천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보통교부세(97%) 4조1천억원, 특별교부세(0.3%) 1천억원 등 총 4조2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쳐야겠다"고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시 무안공항 비전토론회 개최 가능할까

市 "전남도가 함께 해야 성과...반대하면 단독으로 추진" 道 "합의 없는 상태에서 계획 일방 발표 유감" 부정적

민간·공공형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월 중 개최를 공언한 '무안공항 비전토론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석용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무안공항 비전토론회를 전남도가 반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전남도에서는 최근 갈등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한다면) 토론회 형식이 될지 비전 발표가 될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남이 무안을 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회든, 비전 제시든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전남도와와의 공동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상황회의에서 간부들에게 10월 중 무조건 무안공항 비전토론회를 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합의서에 소음토론회, 무안 비전토론회, 공항 활성화 포럼 세가지는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라며 "비전토론회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국책사업에 대해 준비된 대로 필요하면 발표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발언과 관련, 합의서에 무안 비전토론회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합의서 4

조 2항에 전남도는 무안군 발전을 위해 무안 이전 지역 발전 비전을 추진한다"로, 토론회 명칭은 아니지만 비전을 추진한다"로 돼 있다"며 "각각 하는 것은 좋지 않아 공동으로 가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문구 하나 하나, 맥락을 갖고 서로 간에 대응하는 것, 비전 제시라는 게 누가 하나하는 것보다 각각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남도는 비전토론회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동참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전토론회 협의는 있었지만 개최에 합의한 바 없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발표한 뒤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정·박선경 기자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비상등'

최근 5년 사망자 400여명...문금주 "종합대책 시급"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400여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율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수확기 안전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기계 사고는 5천9

07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398명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무려 4천593명으로 사상률이 78%에 달했다.

농기계 사고는 2018년 1천57건, 2019년 1천21건, 2020년 1천29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천7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1천384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해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처럼 농촌 현장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고 농기계 사고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거나 숨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경북 1천47건, 경남 1천33건, 전남 922건, 전북 697건, 충남 501건, 경기 49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문금주 의원은 "가을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지도 교육 강화와 사고 유형에 맞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1면 '대투수 양현종'서 계속

만 36세 6개월 21일 나이인 양현종은 올 시즌 주축 선발 투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내일과 함께 '원투판치'로 마운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29경기에 등판해 11승(5패)을 올리며 2년 만에 10승 투수로 돌아왔고, 팀내 최다인 15차례의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시즌 우승에 일조했다. 완투

도 유일하게 3차례 던져이 부문 전체 1위에 등극하는 등 극단적인 올해 타고투저 현상 속에서도 노익장을 과시했다.

양현종은 올해 KBO 통산 최다 탈삼진 신기록도 잡아치우며 '레전드'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달 21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프로 통산 2천49번째 탈삼진을 기록, '전설' 송진우(빙그레·2천48개)를 넘어 새터이 부문 1위로 우뚝섰다. 양현종은 최근 5경기에서도 27개의 삼진을 보태 2위

송진우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아울러 올 시즌 129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이강철(kt 감독), 장원준(전 두산 베어스)에 이어 역대 3번째로 10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도 작성했다. 내년에도 100개 이상의 탈삼진을 작성하면 최초로 11시즌 연속 100탈삼진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살아있는 전설'의 길을 걷고 있는 양현종은 이제 데뷔 이후 3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모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유동 로타리 대로변 코너 최고요지 상업지 228㎡
급매 10억 3,000 (면적 추가가능)

광주역 6차선 대로변 상업지 대지 479㎡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주차6대 급매 14억 9,000(커피카페,음식점,전시장등 묶든 최적)

광주역 코앞 상업지 대지 534㎡ 6층 1,145㎡ 승강기1 주차16
스프링클러, 병원기준완비, 의료장비도 비치, 병상7개
급매 26억 8,000(조정가/임대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압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